

‘중앙정부도 주목’ 광주 서구 골목상권 정책 통했다

김민석 총리 광주 골목형상점가 방문...상인·주민과 소통의 시간
“주민 생활비 절감·골목상권 매출 동시 이뤄낸 우수 정책” 평가
가맹점 확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전년 대비 14.5배 늘며 화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추진한 골목경제 혁신정책이 또 한 번 중앙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서구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동천동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골목상권 혁신모델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후 진행된 후속 일정이다. 특히 김 총리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구의 혁신정책을 소개하며 “직접 현장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동천동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방문은 김이강 서구청장의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골목 상점 순회, 상인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김 청장은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국비로 운용되는 온누리상품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와 서구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의 기초인 골목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이 잘 조합되어 우리 민생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지역 121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이 전년 대비 14.5배 증가해 주민 생활비가 100억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으며 상인들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광주 서구 동천동 골목상권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과 만났다.

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현재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를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0일 조기 종료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선할인 정책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비 6억 원을 투입해 일주일 단위로 순차적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구청장 직무실에 ‘골목경제119 상황판’을 설치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기 위해 ‘골목경제119폰’을 개설하고, 18개 동을 순회하는 골목점무실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25일 상하이에서 현지 기업·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지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경제자청 하동사무소, 중국서 투자유치 활동 대송산단 중심 하동지구 홍보·제조기업 대상 설명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청장 구종근, 이하 광양경제자청 하동사무소)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하이(Shanghai), 우시(Wuxi), 닝보(Ningbo) 일대에서 하동지구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제조업 기반이 강한 주요 도시에서 대송산단 중심의 하동지구를 적극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경제자청 하동사무소 투자유치단은 25일, 상하이의 세계한인경제무역협력회(OKTA), 경남·전남 상하이 사무소, 상하이 한국상회 등을 방문해 중국 제조업계의 투자 흐름을 파악하고 하동지구의 산업여건과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같은 날 상하이 훙차오 지역에서 열린 하동지구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현지 제조기업, 유관기관, 언론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대송산단과 갈사산단의 인프라와 지원 제도 등을 소개했으며 이후 기업별 일대일 상담이 이어졌다. 인쇄·자동차 부품·전자기기·스캐너 등 다양한 업종 기업들이 참여해 하동지구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서 투자유치단은 상하이·우시·닝보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 포장재, 친환경 에너지 설비 기업 등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각 기업의 해외 확장 전략에 맞춰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동사무소는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물류 강점을 중심으로 기업별 맞춤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하동지구, 특히 대송산단지역의 인지도를 중국 제조업계에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조업 중심 도시를 직접 찾아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투자 유망 기업을 선별해 후속 상담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홍성주 광양경제자청 하동사무소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번 일정을 통해 하동지구의 매력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 실효성 있는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개발공사,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나서

전남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정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전세상생금융펀드 40억원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IBK기업은행과 함께 전세상생금융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IBK기업은행이 조성한 40억원의 전세상생금융펀드는 도민 대상 전세자금대출 이자 중 1.95% 금리감면을 지원, 전세 계약을 앞둔 도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전남도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19~45세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소득 연 합산 1.2억원 이하이다. 한부모가정 대상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3.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가구당 연 300만원 이내 지원한다. IBK기업은행 대출심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전남 및 광주 소재 IBK기업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주거복지 사업은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동남아서 ‘투자유치·시장 확대’ 두마리 토끼 잡는다

28일까지 글로벌오픈기업 10개사, 해외시장 개척·현지 투자상담
태국 국가혁신청과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협력 3자 업무협약도



전남 오픈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현지상담회 '1대1 투자자미팅(Meet-Up)'.

전라남도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8일까지 5일간 동남아 주요 혁신거점을 방문해 전남 오픈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현지 상담회를 진행,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글

로벌 오픈기업 55+ 육성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참가에 이어 올해는 방콕, 싱가포르 등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전남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남을 대표하는 오픈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대부분 디지

탈헬스케어·바이오테크·모빌리티·AI·소재기술 등 전남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기술 기반 기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파트너사와의 접점을 넓혔다.

글로벌 오픈기업 10개 사는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테드 펀드(TED Fund) 등을 방문,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동남아 시장 트렌드 정보를 교류했다. 전남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태국 국가혁신청(NIA)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하는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글로벌 창업 허브인 블록71(BLOCK71)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 특강과 그룹 멘토링 등 현지 투자기관, 기업 관계자들과 시장검증·투자유치 등 다양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싱가포르 MBS IR 피칭 행사에서는 참가기업 10개 사가 IR 발표와 현지 파트너와의 1대1 미팅을 통해 기술 제휴, 해외시장 검증 등에 대한 다양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기업들은 현지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미팅·사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영광군, 묘량농공단지 분양...제조업 투자 유치 본격화

평당 분양가 54만5000원

전남 영광군이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성한 '묘량농공단지' 분양을 본격 시작했다. 영광군은 지난 13일 산단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식품·금속·전기 등 제조업 중심의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묘량농공단지 는 묘량면 신천리·영양리 일원 21만3647㎡ 규모로 조성됐다. 기반시설을 갖춘 데다 물류 접근성과

임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제조업 기업의 공장 설립과 조기 가동에 최적화했다는 평가다.

분양가는 평당 54만5000원으로 농공단지 조성원가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다. 기업의 규모와 투자 계획에 따라 다양한 면적 선택이 가능해 유연한 입지 전략 수립에도 용이하다.

제조 중심 산업을 위한 부지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